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동지 잃고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자기 상가 매입비 200억 원 지원

ZOOM IN

- 서울시, 금융회사에 설비설치 자금, 신규고용·교육훈련 비용 지원
- 이탈리아 명문 구두전문학교 제화 노하우, 서울에서 배운다

HOT ISSUE

- 국적 초월한 682평 창업 공간,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문 열다
- 서울시, 美 뉴욕에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 주선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FOCUS 01

서울시, 동지 잃고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자기 상가 매입비 200억 원 지원

홍대입구, 가로수길 등 서울시내 활성화 지역에서 동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임차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지만 임차상인은 법으로 보장된 5년의 영업기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장기적인 투자는 고사하고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9월 1일부터
50억 원 한도 내
최대 15년 분할상환
2.5% 장기 저리로
상가 매입 지원**

서울시는 동지내몰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활용하여 임차상인이 자기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이 자기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가매입비의 75%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지원한도: 사업장 매입비의 75% 이내, 사업자별 최대 50억 원 이내
- 대출금리: 2.5%(준고정,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금리에 따름)
- 상환조건: 최대 15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대출기간 10년)
-3년 거치 12년 균분상환(대출기간 15년) 중 선택가능

상가 매입 지원대상은 ①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한하며, ②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③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④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소재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만약 현재 위치한 사업장 매입이 어렵다면 현재 사업장이 아니어도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에 한해 지원한다.

*단,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캠프링 및 배팅업, 옥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의 업종은 지원이 제외되며, 신청 요건,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각 지점(☎1588-5000)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우리은행(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가능, 중도상환
해약금 없어**

서울시는 상가 매입비 용자 이후 사업장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 지원 자금을 즉시 회수하며, 매입비 대출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사항, 정상영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ZOOM IN | 01

서울시, 금융회사에 설비설치 자금, 신규고용·교육훈련 비용 지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최초로 금융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설비설치 자금, 신규고용·교육훈련 비용에 1인당 6개월간 50만 원 지원

서울시는 금융회사에 설비설치 자금의 10% 이내를 지원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1명당 최대 50만 원씩 6개월, 교육훈련 인원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여의도에 신규법인을 창업하거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본부나 지점을 여의도로 이전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용 설비설치 자금', '신규고용 자금', '교육훈련 자금'의 보조금을 받는다.

* 사업용 설비설치 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기계설치, 전자장비 설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필요자금의 10%이내를 지원하고, 신규고용 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 원을 보조해준다. 교육훈련 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직원을 교육시킬 때 교육훈련인원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9월 20일(화)부터 10월 4일(화)까지 분야별 기업의 보조금 지원요청 신청을 받은 후, 외부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와 서울시는 '여의도'를 2010년 1월 금융 중심지로 지정한 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금융산업 분야에도 확대하였다. 여의도 금융 중심지 내에 위치하고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은 3가지 보조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은 신규고용 자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여의도에서 좋은 금융일자리 창출되도록 지원할 것

서울시는 "이번 보조금 지원이 많은 금융회사가 여의도로 움직이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금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ZOOM IN | 02

이탈리아 명문 구두전문학교 제화 노하우, 서울에서 배운다

서울시는 국내 유명 제화업체의 디자인실장, 수석연구원은 물론, 수제화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구두전문학교에서 초빙한 교수에게 디자인부터 브랜드 관리까지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아카데미를 성수동에 연다. 우수 교육생에게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구두박람회 'MIKAM'의 견학 기회와 취업·창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이탈리아 교수 특강,
국내 유명 제화업체
현업 디자이너,
수석연구원 등의
강사진으로 구성**

교육과정은 크게 ▲남녀 슈즈 디자인 ▲드로잉·일러스트레이션 ▲제화·패션 머천다이징(MD) ▲브랜드 매니지먼트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총 16주간(9.5~12.23) 성수IT종합센터 내 제화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수업을 세분화·전문화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포트폴리오 제작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국내 유명 제화업체의 전문가들은 물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 교수진도 강사로 초빙했다.

이탈리아 강사진으로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밀라노의 구두학교인 '아르스 수토리아(ARS SUTORIA)'의 오리에타 펠리자리(Orietta Pelizzari), 조지아 로헤(Georgia Roehle) 교수를 초빙했으며, 교육생들에게 최신 글로벌 트렌드와 콜렉션 개발, 브랜드 기법 등을 알려 줄 계획이다. 국내 전문가 풀(pool)은 현재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실장, 갑피·저부 개발실장, 수석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이론부터 실기교육까지 담당한다.

*아르스 수토리아: 전 세계 명문 패션 교육기관들과 교류하며 체계적이고 집중도 높은 커리큘럼으로 이탈리아의 선도적인 제화교육을 이끌고 있으며, 브랜드와 디자인을 통한 글로벌 트렌드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디자인, 브랜드
매니지먼트 등
이론·실습 병행,
포트폴리오 제작 등
취업·창업 연계**

서울시는 수료자 가운데 최우수 성적을 거둔 1인에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탈리아 슈즈페어인 'MIKAM'을 참관하고 직접 밀라노 현지 시장조사도 하면서 세계적으로 '핫한' 수제화 시장을 체험하고 트렌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끝난 후에도 성수 수제화공동판매장 입점, 사회적기업에 취업·창업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적 초월한 682평 창업 공간,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문 열다

국적을 초월한 창업 인재가 모이는 공간인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Seoul Global Startup Center)'가 나진전자월드(서울시 용산구)에 문을 열었다.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문 열어 10개국
50개 팀 입주,
예비 인큐베이팅 시작**

국내 거주 외국인, 이민자, 유학생 등의 창업 지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등을 위해 설립된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이후 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게 무상 창업 공간, 비자취득, 법률, 회계, 특허 컨설팅, 1:1 멘토링 등 사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소 첫 프로젝트로 '센터 입주기업 모집'에 전 세계 52개국 252개 팀 607명이 참가했으며, 결혼이민여성들이 생산한 개성 있는 제품의 유통을 돕는 앱 개발, 베트남 장애우를 돕는 사회적 아이템 개발, 한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유통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 지원했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국내 외국인 창업 생태계 발전과 서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50개의 예비 입주기업을 선정하였는데, 특히 해외 지원자를 위해 화상면접을 진행하여 6개 팀 중 2개 팀을 선발하였다.

**52개국 252개 팀 중
최종 선정된 40개
팀에는 창업 공간,
자금과 각종 지원**

9월 한 달간 예비 인큐베이팅을 통해 40여 개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기업에게는 무상 창업 공간과 바우처 형태의 창업 자금(1천만원 이내)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선발 과정에서 탈락된 팀에게도 별도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이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해 성공함으로써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창업 기업이 해외 각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T ISSUE | 02

서울시, 美 뉴욕에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 주선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이번 미국 순방에 10개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 동행해 '서울 데모데이 in 뉴욕'을 개최했다. 서울시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 스타트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뉴욕 현지에서 서울시가 직접 세일즈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성장 역량이 풍부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사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돕고자 한다.

서울시, '서울 데모데이 in 뉴욕' 핀테크·바이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 주선

이 행사에는 뉴욕 소재 벤처캐피털(VC), 펀드회사, 엑셀러레이터(창업보육·투자기관) 등 30여 개 회사가 초청되었으며 글로벌 투자기관 '골드만삭스', 실리콘밸리 최대 스타트업 투자 펀드회사 '500Startups', 뉴욕의 유명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ERA(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 등 세계적인 투자사들이 참여해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높였다.

참가 스타트업 10개사는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기업들이며 ▲핀테크 5개 ▲바이오 3개 ▲ICT 1개 ▲패션 1개 업체로 구성되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이 행사에서 10개 기업은 개별 발표 세션에서 기업을 홍보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투자사 관계자들과 개별미팅을 갖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참여기업(10개):

〈핀테크〉 ▲쿼터백 자산운용 ▲YAP ▲자영테크 ▲뉴지스탁 ▲센트비
〈바이오〉 ▲뷰노코리아 ▲디앤피바이오텍 ▲바이오센서연구원 〈ICT〉 ▲다비오 〈패션〉 ▲맥앤로건

서울시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해 해외진출, 투자유치 지원 및 신뢰도 확보

박원순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GDP 대비 R&D 투자금액 비율이 가장 높으며, 65개 대학에서 끊임없이 우수인재를 배출하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라며 “서울 데모데이를 계기로 서울의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의 기회를 잡는 동시에 서울이 아시아 진출과 투자를 모색 중인 미국 기업에게 기회 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